

코스피지수 1,360.54 (-39.17)

코스닥지수 498.03 (-15.10)

금리(국고채 3년) 4.12% (-0.08)

원·달러 환율 1,290.80원 (+16.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공공부문 조기발주 상반기엔 그럭저럭 버텼지만

지역 건설사 하반기 수주 비상

금호건설 1조4천억원 ... 작년동기비 41% 급감

대부분 업체 '반토막 실적' 우려 물량 확보 총력

지역 건설업체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기발주에 힘입어 상반기 수주액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는 이렇다할 물량이 예정돼 있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역에 달한 반면, 주택 부문은 신규 주택 시장 위축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2조원에 달했던 주택 부문 수주 물량은 이달 현재 2천100억 원에 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수주 물량이 급격히 소진되고 '4대강 살리기' 등 공사도 수도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중견 건설업체는 올해 목표액을 달성하려던 상반기 '선방'만으로는 어렵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에서 따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남양의 올 수주목표액은 1조8천억원이다. 이외 동광건설도 올 상반기 도로·상수도 등 410억원 정도의 공공 부문 공사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업체 '지앤알'

첨단에 모듈공장 ... 외자 3천만불 유치

광주에 본사를 둔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인 지앤알(대표이사 최오진)이 모듈공장 착공과 함께 3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가 성공했다.

730m(1천733평) 규모로 연간 태양광 모듈 30MW 생산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50MW 시공이 가능토록 복층 구조로 설계됐다.

내년 '최저임금안' 노사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안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5일 마지막 협상을 벌이

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5일 마지막 협상을 벌이지만 양측간 제시액의 격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제작년과 작년에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견해차가 심해 3년 만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최근 프랑스 앙시에서 열린 '2009 앙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최대 CGI클러스터의 대표 기관인 이미지노브(IMAGINOVE)와 산하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및 글로벌 마케팅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프랑스 찍고 세계로 간다

佛 배급사와 '아기고릴라 등등' 60편 계약

광주의 기업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가 프랑스를 통해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정화 감독)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AMITO와 TV시리즈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이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교류 및 글로벌 마케팅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첨단 영상 분야의 공동 제작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상담회 공동 개최 등 협력키로 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김영' (Kim Young)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featuring contact info and success stories.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agency names, address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HK (주)호남 경매 컨설팅' (HK South Korea Auction Consulting) with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services and contact info.